

이카로스의 날개

날개를 잃은 청년

글:임효은
그림:이수연,채연우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미노스의 왕 때문에 크레타섬에서 떠날 수 없었다.

어느날, 다이달로스는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새의 날개에서 깃털을 모아
한땀 한땀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 주며 비행연습을 시키고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거라"

"네, 아버지."

그 단단히 주의를 주는 말에
이카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탈출하는 날이 찾아왔다.

밀랍으로 된 날개를 어깻죽지에 단 다
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하늘을 나는
자유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태양에 가깝게 날아오르게 되었다.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이카로스는 날개를 잃고
바다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